

대선후보 선호 요인과 여론조사 신뢰도 평가

■ 대선후보 호감 요인 분석

- _ ‘리더로서의 자질’ + ‘가치관·이념성향’ 가장 높아
- _ 일반인 ‘호감’ 요인과는 많은 차이 있어
- _ 2030세대, 전반적으로 국민전체보다 낮은 점수 기록
- _ 4050세대, 여성층의 영향력 점수 높아
- _ 60대이상 연령층, 남녀 비슷한 양상
- _ 관심 있는 대선후보 정보 접촉, 지상파 TV 압도적

■ 대선후보 ‘호감’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 _ 국민들, 호감가는 ‘개인’ 잘못했을 때 ‘냉정한 태도’
- _ 호감가는 ‘대선후보’ 말실수 보도 시 ‘우호적 태도’

■ 대선 관련 여론조사 신뢰도 평가

- _ 여론조사 결과, ‘신뢰 안한다’ 64%
- _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결과, 내게 ‘영향 안준다’ 60%
- _ 선호도 조사결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준다’ 73%
- _ 여론조사 방법 차이 인지 여부, ‘조금 안다’ 53%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8월 6일(금) ~ 8월 8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4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4\%$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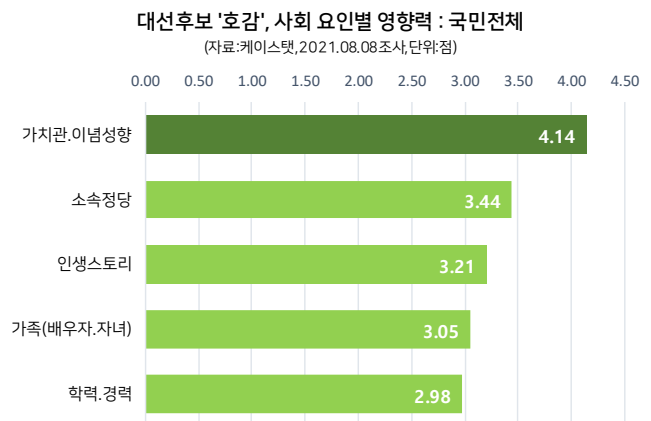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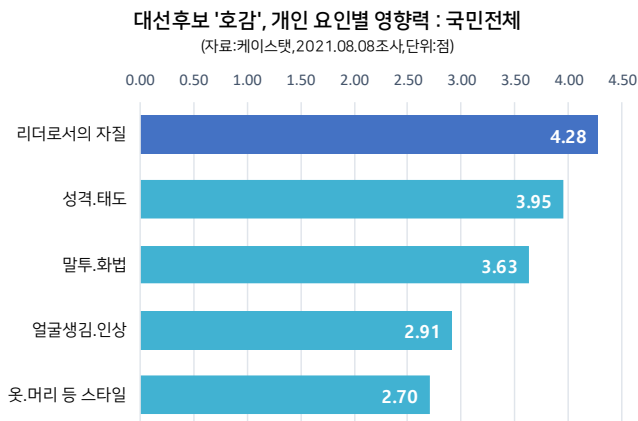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대선후보 호감 요인 분석

□ '리더로서의 자질' + '가치관.이념성향' 가장 높아

- 대선후보에 대한 '호감' 요인을 질문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개인 요인 중에서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사회 요인 중에서는 '가치관.이념성향'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선생님은 호감이 가는 대통령 선거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가 있을 것입니다. 호감이 가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경우, 호감이 가도록 하는데 다음 각각의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총 10개 요인을 랜덤하게 제시함
 - 각 요인에 대한 영향력 점수는 '별 영향 없다' 1점, '매우 영향 있다' 5점을 기준으로 응답토록 한 결과임
- 개인 요인에서 '리더로서의 자질'(4.28점) 다음으로는 '성격.태도'(3.95점), '말투.화법'(3.63점), '얼굴생김.인상'(2.91점), '옷 머리 등 스타일'(2.70점) 순으로 나타남
- 사회 요인은 '가치관.이념성향'(4.14점) 다음으로 '소속 정당'(3.44점), '인생 스토리'(3.21점), '가족(배우자.자녀)'(3.05점), '학력·경력'(2.98점)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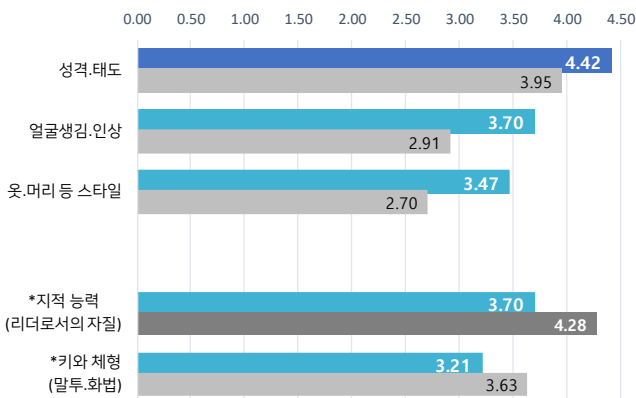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이 대선후보에 호감을 느끼는 요인은 '리더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이념성향'이라는 두 축으로 나타남
 - : 즉, 차기 대통령에 어울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이 두 가지 요인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분석됨
 - : '리더로서의 자질'은 국가 최고책임자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역할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고, '가치관.이념성향'은 대통령으로서 구상하는 대한민국 미래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한편, '얼굴생김.인상'이나 '옷.머리 등 스타일'은 큰 영향이 없고, '가족(배우자.자녀)'과 '학력·경력' 등도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 얼마 전에 정치인들의 '눈썹 문신'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조사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이는 부차적 요인으로 보임
 - : 또한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영향력도 낮아, 국민들은 대선후보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판단됨
- ☑ 종합하면, 대선후보들이 국민적 호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적 이미지가 아니라 '리더십'과 자신의 '가치관'(이에 기반한 공약)을 부각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임
 - : 더불어 전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성격.태도'에 주목할 때,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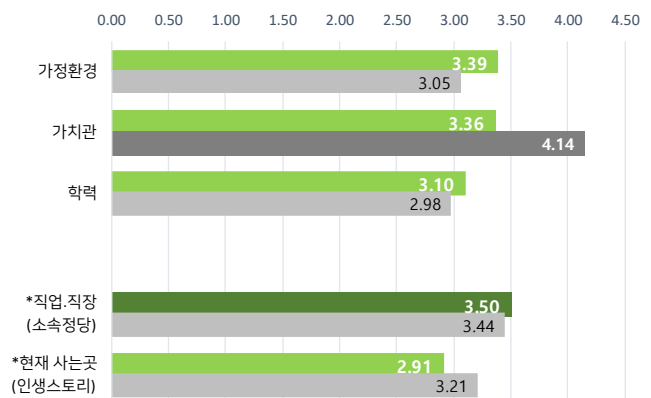
□ 일반인 '호감' 요인과는 많은 차이 있어

-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사람들, 즉 일반인을 볼 때는 '성격, 태도'와 '직업·직장'이 가장 중요한 '호감' 요인임
 - 케이스탯에서 지난 6월에 조사한 결과로 "선생님은 평소 호감이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의 경우, 호감이 가도록 하는데, 다음 각각의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영향력을 5점 만점으로 응답토록 한 결과임
 - 개인 요인으로 '성격, 태도'가 4.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 요인 중에서는 '직업·직장'이 3.50점으로 가장 높았음
- 일반인과 대선후보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요인은 '성격.태도'와 '가치관'임
 - '성격.태도' 영향력 점수 : 일반인, 4.42점 / 대선후보, 3.95점
 - '가치관' 영향력 점수 : 일반인, 3.36점 / 대선후보, 4.14점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가 대선후보 '호감' 요인 점수임
- 다른 요인들은 일반인과 대선후보가 다른데, 먼저 개인 요인 중에서는 '얼굴생김.인상'과 '옷.머리 등 스타일'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얼굴생김.인상'의 경우 일반인 영향력 점수는 3.70점으로 높지만, 대선후보 영향력 점수는 2.91점으로 낮음
 - 개인 요인 중 다르게 질문된 내용은 두 가지로 '지적 능력 → 리더로서의 자질', '키와 체형 → 말투.화법'임
- 사회 요인 중에서는 '가정환경'과 '학력' 영향력이 대선후보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함
 - '가정환경'의 일반인 영향력 점수는 3.39점인데 비해, 대선후보 영향력 점수는 3.05점임
 - 사회 요인 중 다르게 질문된 내용은 두 가지로 '직업.직장 → 소속 정당', '현재 사는 곳 → 인생 스토리' 등임

일반인 '호감', 개인 요인별 영향력과 비교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점)



일반인 '호감', 사회 요인별 영향력과 비교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점)



Kstat Point

- ☑ 국민들은 일반인과 대선후보를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 '호감' 요인의 영향력 점수를 보면, 공통적으로 높은 요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 ☑ '성격, 태도'와 '가치관'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대선후보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지만, 대선후보의 '얼굴생김.인상'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은 중시하지 않음
 - : 또한 '가정환경'에 대해서도 중요성이 떨어짐
- ☑ 대선후보 등 정치인에게는 '이미지'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그간의 '논증'이 재차 확인되는 지점임
 - : 리더로서 자신의 뚜렷한 가치관에 입각한 '메시지'(정치적 메시지, 공약 등)가 가장 중요한 '호감'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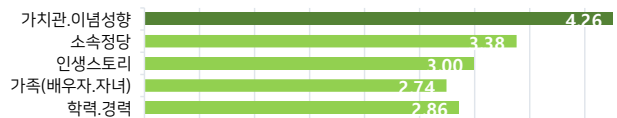
□ 2030세대, 전반적으로 국민전체보다 낮은 점수 기록

- 성/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가 중시하는 ‘호감’ 요인은 국민 전체와 거의 같음
 - ‘리더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이념성향’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영향력 점수 순위 역시 거의 같음
- 그러나 국민 전체 점수와 비교하면 2030세대는 전반적으로 국민전체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 그림에서 연한 색 막대는 해당 요인의 국민전체 점수보다 낮은 점수이고, 짙은 색 막대는 국민전체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의미함
- 개인 요인 중에 2030세대가 국민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요인은 소수이고, 성/연령별로 다름
 - 남자 30대는 ‘옷.머리 등 스타일’이 높았고, 여자 18~20대는 ‘말투.화법’과 ‘얼굴생김.인상’, 여자 30대는 ‘성격.태도’와 ‘옷.머리 등 스타일’ 점수가 국민전체보다 높았음
- 사회 요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전체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남녀 18~20대가 ‘가치관.이념성향’에 대해서는 국민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점이 특이함

남자18~20대 대선후보 '호감', 개인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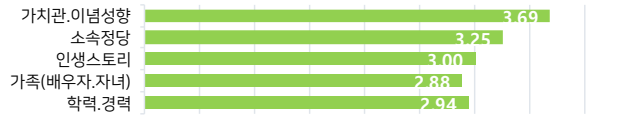
남자18~20대 대선후보 '호감', 사회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남자30대 대선후보 '호감', 개인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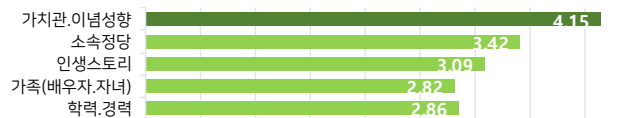
남자30대 대선후보 '호감', 사회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여자18~20대 대선후보 '호감', 개인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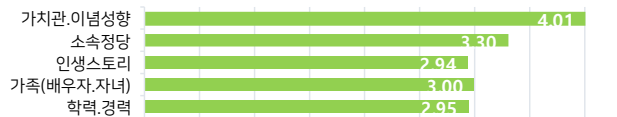
여자18~20대 대선후보 '호감', 사회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여자30대 대선후보 '호감', 개인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여자30대 대선후보 '호감', 사회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Kstat Point

- ☑ 남녀 2030세대는 전반적으로 대선후보 '호감' 영향력 점수가 국민전체보다 낮다는 특징을 보임
 - : 이는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이 높은 이들 세대가 상대적으로 대선후보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됨
 - : 케이스탯 지표 중 하나인 '정당 호감도'를 보면, 남녀 2030세대는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비중이 특히 높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8월 사회지표』 참고)
- ☑ 한편, 현실정치에 대한 불만이 가장 강한 남녀 18~20대는 '가치관과 이념성향'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양상임
 - : 즉, 대선후보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치관과 이념성향'만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임
 - : 대선후보들이 이들을 겨냥한 '이미지'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메시지'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4050세대, 여성층의 영향력 점수 높아

- 4050세대는 전반적으로 남성층은 국민전체 영향력 점수보다 낮고, 여성층은 높은 특징을 보임
 - 그림에서 연한 색 막대는 해당 요인의 국민전체 점수보다 낮은 점수이고, 짙은 색 막대는 국민전체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의미함
- 특히 남자 40대의 영향력 점수는 모든 요인에 걸쳐 국민전체보다 낮음
 - 남자 50대는 '리더로서의 자질'과 '인생 스토리', '가족'에 대한 점수만 국민전체보다 높음
- 여자 4050세대는 모든 요인에서 국민전체 영향력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함

남자40대 대선후보 '호감', 개인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남자40대 대선후보 '호감', 사회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남자50대 대선후보 '호감', 개인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남자50대 대선후보 '호감', 사회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여자40대 대선후보 '호감', 개인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여자40대 대선후보 '호감', 사회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여자50대 대선후보 '호감', 개인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여자50대 대선후보 '호감', 사회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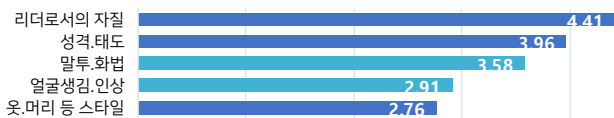
Kstat Point

- ☑ 남성 4050세대의 낮은 영향력 점수는 일면 앞서의 2030세대와 같아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른 것으로 보임
 - : 2030세대는 현실정치에 대한 불만이 높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음
 - : 그러나 4050세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으로 국민여론을 좌우하는 세대적 특징을 보여 왔음
- ☑ 이렇게 볼 때 남성 4050세대의 낮은 영향력 점수는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임
 - : 지지 후보를 결정했기에 개별 요인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 같은 이유로 여성 4050세대의 높은 영향력 점수는 지지후보를 최종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 '유동성'을 만드는 세대가 이들 여성 4050세대로 보여, 대선후보 입장에서는 여성 4050세대 공략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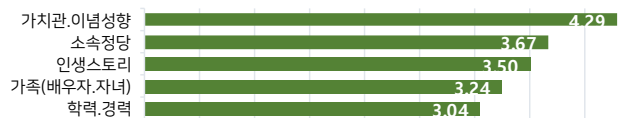
□ 60대이상 연령층, 남녀 비슷한 양상

- 60대이상 연령층은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영향력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함
 - 그림에서 연한 색 막대는 해당 요인의 국민전체 점수보다 낮은 점수이고, 짙은 색 막대는 국민전체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의미함
- 남자 60대이상 연령층은 ‘말투.화법’과 ‘얼굴생김.인상’만 국민전체 점수보다 낮고, 다른 요인은 모두 높음
 - 여자 60대이상 연령층은 모든 요인에서 국민전체 영향력 점수보다 높음

남자60대이상 대선후보 '호감', 개인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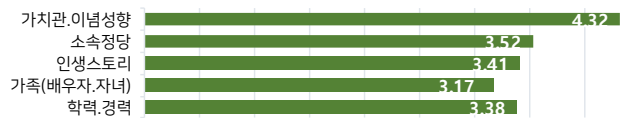
남자60대이상 대선후보 '호감', 사회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여자60대이상 대선후보 '호감', 개인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여자60대이상 대선후보 '호감', 사회 요인별 영향력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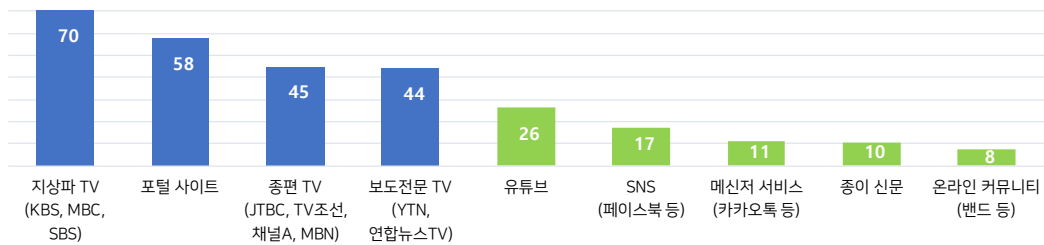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대이상 연령층은 보수성향이 강하고, 대선후보 선호도에서도 보수성향 후보의 강세가 뚜렷한 연령대임
- ☑ 현 시점에서 남녀 모두 영향력 점수가 높은 것은 보수성향 대선후보로 누구를 지지할지 최종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임
 - :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주요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영향력 점수 역시 비례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고 있지만, 아직은 유동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되고, TV토론 등을 통해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됨

□ 관심 있는 대선후보 정보 접촉, 지상파 TV 압도적

- “선생님께서서는 평소 관심 있는 대선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어느 경로를 통해 접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라는 질문에 지상파 TV가 70%로 1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 포털사이트(58%), 종편 TV(45%), 보도전문 TV(44%), 유튜브(26%) 순으로 응답함

관심있는 대선후보 정보 접촉 경로 (복수선택): 국민전체
(자료:케이마켓, 2021.08.08조사, 단위:%)



- 성/연령별 및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상파 TV 뉴스 영향력이 절대적인 가운데 성/연령별로 이용하는 매체가 다소 다름
 - 2030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상파 TV 뉴스 영향력이 낮은 가운데 남성층은 유튜브, 여성층은 SNS를 선호함
 - 4060세대는 지상파 TV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특히 남성층은 유튜브, 여성층은 종편 TV를 많이 이용함
 - 보수층은 종편 TV를 선호하지만 진보층은 지상파 TV를 선호하는 가운데, 보수·진보 모두 유튜브 이용이 활발함
 - 한편,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종이신문의 주된 구독자임

	지상파 TV	포털 사이트	종편 TV	보도전문 TV	유튜브	SNS	메신저 서비스	종이 신문	온라인 커뮤니티
남18~20대	53	54	28	35	37	17	18	9	9
남30대	66	58	38	35	32	13	9	11	3
남40대	73	69	41	44	31	13	11	6	7
남50대	69	60	49	52	31	26	11	12	7
남60대이상	80	68	64	56	32	21	9	27	7

	지상파 TV	포털 사이트	종편 TV	보도전문 TV	유튜브	SNS	메신저 서비스	종이 신문	온라인 커뮤니티
여18~20대	62	55	21	25	16	28	16	4	8
여30대	63	55	31	31	15	13	7	2	10
여40대	79	54	57	50	23	14	8	4	8
여50대	80	53	51	57	24	17	11	12	11
여60대이상	74	51	67	55	18	7	5	1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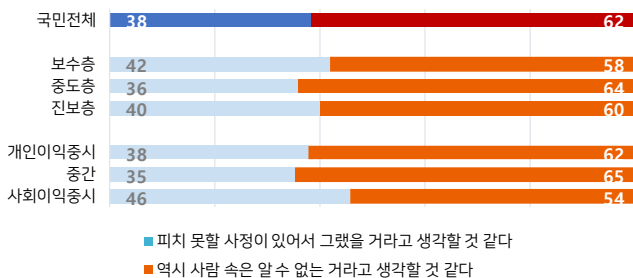
	지상파 TV	포털 사이트	종편 TV	보도전문 TV	유튜브	SNS	메신저 서비스	종이 신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수층	63	61	58	43	30	17	10	11	8
중도층	73	56	42	44	23	17	11	10	7
진보층	71	58	39	46	29	18	11	10	9

대선후보 '호감'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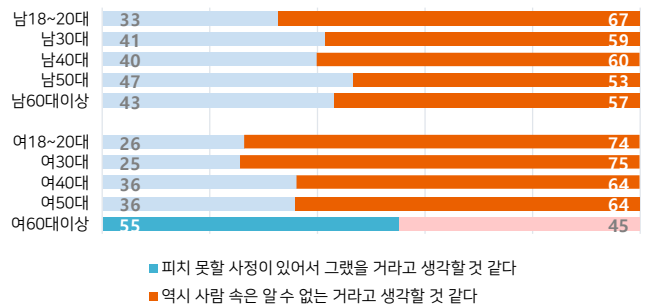
국민들, 호감가는 '개인' 잘못했을 때 '냉정한 태도'

- 평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접할 경우, 국민의 62%는 '역시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응답함
 - "선생님께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접하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라는 질문 후 '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 '② 역시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보기에 대한 조사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봐도 거의 모든 계층에서 '역시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응답이 우세함
 -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60대이상에 불과함
 - 호남지역은 우호적 태도와 냉정한 태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 '냉정한 태도'가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2030세대 △학생 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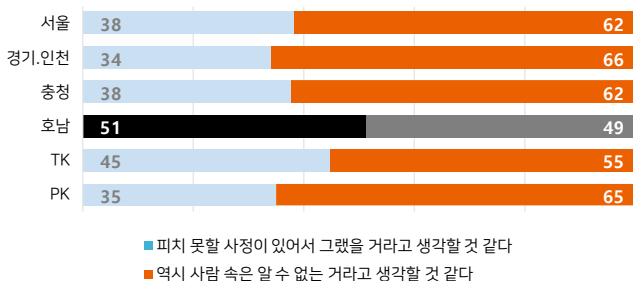
호감 사람, 잘못 저지른 소식 접할 때 생각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의중시별 (2021.08.08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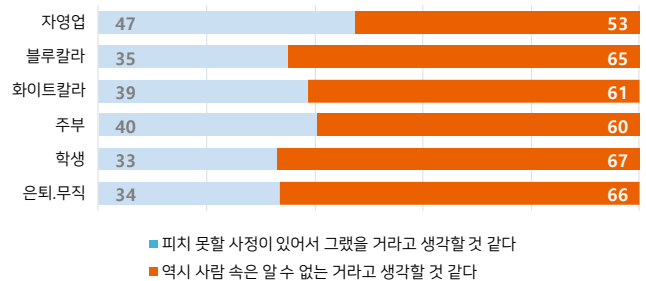
호감 사람, 잘못 저지른 소식 접할 때 생각 : 성/연령별 (단위:%)



호감 사람, 잘못 저지른 소식 접할 때 생각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1.08.08조사, 단위:%)



호감 사람, 잘못 저지른 소식 접할 때 생각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1.08.08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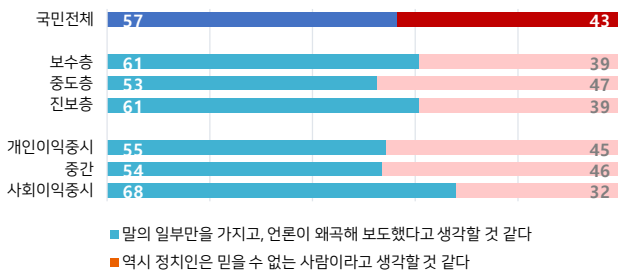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평소 호감을 가졌던 사람인데도 잘못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냉정한 태도'를 취할 만큼 사람(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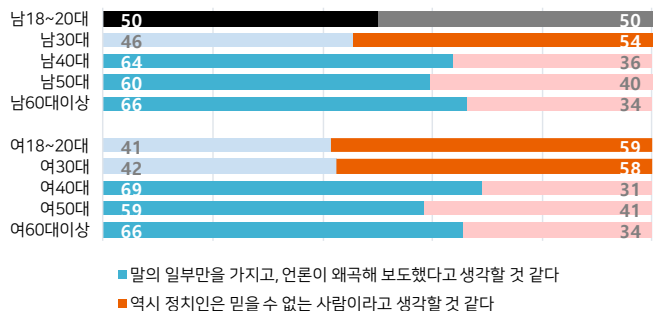
□ 호감가는 ‘대선후보’ 말실수 보도 시 ‘우호적 태도’

- 호감가는 ‘개인’의 잘못에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지만, 호감가는 ‘대선후보’의 잘못에는 국민 중 57%가 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선생님께서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그 사람의 말실수 등을 접하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할거 같으세요?” ‘① 말의 일부만을 가지고, 언론이 왜곡해 보도했다고 생각할 것 같다’, ‘② 역시 정치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응답 결과임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태도가 갈리는데, 2030세대는 ‘냉정한 태도’가 우세하고, 4060세대는 ‘우호적 태도’가 우세함
 - 남자 18~20대의 경우 태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 지역, 직업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우호적 태도’가 우세함
 - ‘역시 정치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은퇴.무직자 계층에 그침
 - PK 지역과 학생 계층은 우호적 태도와 냉정한 태도가 거의 비슷함
- ‘우호적 태도’가 특히 우세한 계층은 △사회이의 중시층 △남자 4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40대, 여자 60대이상 △호남 △주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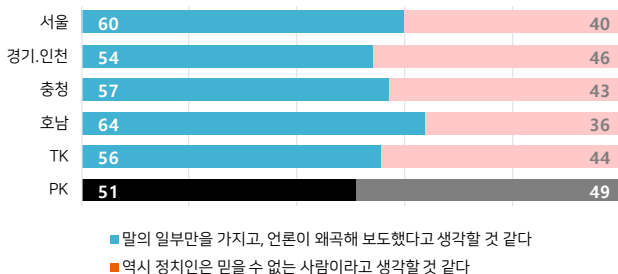
호감 대선후보, 말실수 언론보도 접할 때 생각 : 국민전체,이념별,이의중시별 (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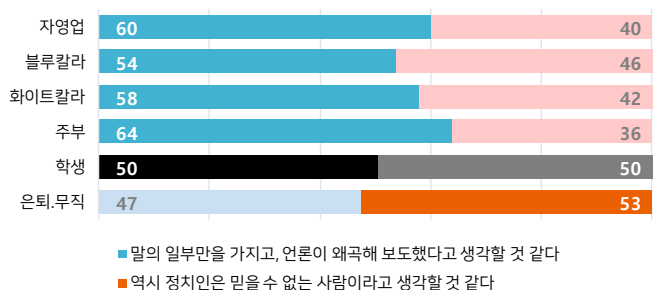
호감 대선후보, 말실수 언론보도 접할 때 생각:성/연령별(단위:%)



호감 대선후보, 말실수 언론보도 접할 때 생각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호감 대선후보, 말실수 언론보도 접할 때 생각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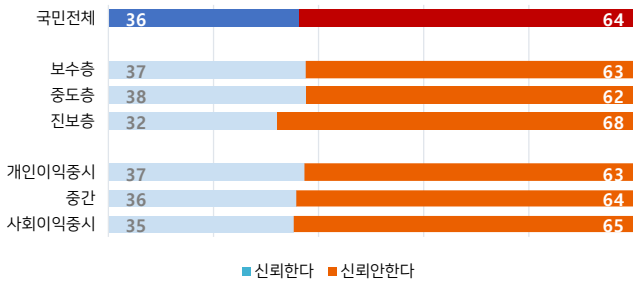
- ☑ 다수 국민이 대선후보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신의 이념과 가치관을 대선후보에 투영했기 때문임 : 즉, 자신의 신념이 투영된 대선후보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쉽게 수용하기 어려움
- ☑ 2030세대가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실 정치에 대한 강한 반발감이 존재하기 때문임

대선 관련 여론조사 신뢰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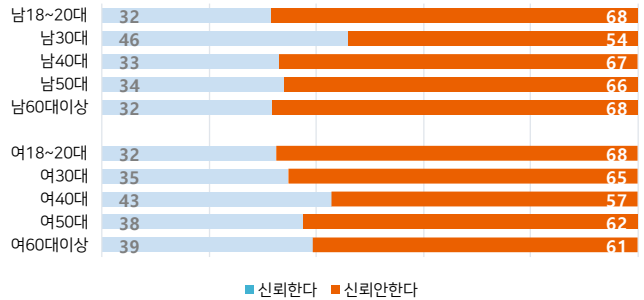
여론조사 결과, '신뢰 안한다' 64%

- 우리 국민 다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선생님은 평소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세요, 신뢰하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에 국민 중 64%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신뢰한다’는 응답은 36%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신뢰 안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특히 높은 계층은 △진보층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경기,인천 △은퇴,무직자 등임
- 상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40대 △TK, PK △학생 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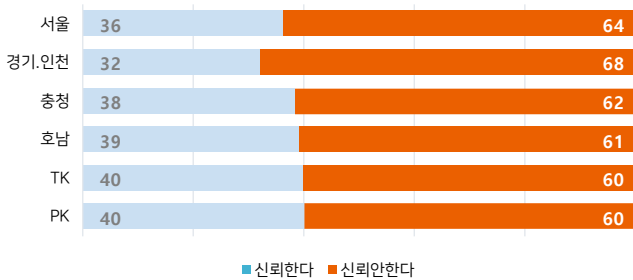
여론조사 신뢰 여부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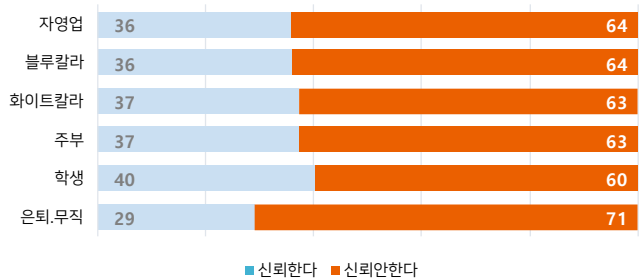
여론조사 신뢰 여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여론조사 신뢰 여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여론조사 신뢰 여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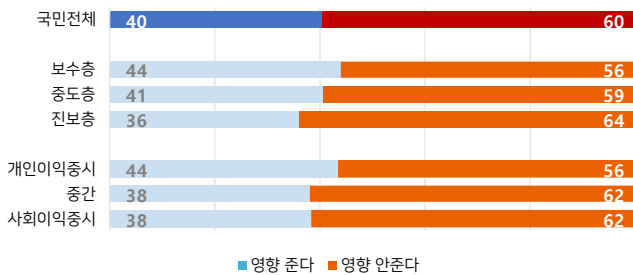
Kstat Point

- ☑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임
: 여론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고, 정책 성과 측정 및 이에 기반한 정책 수정 등의 나침반 역할을 함
- ☑ 국민들이 많이 접하는 여론조사는 언론보도에 의한 것으로, 주로 정치·사회 이슈와 관련된 것이 많음
: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사회공론’을 형성하고, 정부와 국회 등 정책 집행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 그러나 국민 중 64%가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국민들은 여론조사가 우리 사회에 순기능을 하기보다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사회공론’ 형성을 어렵게 하고, 정부·국회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순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지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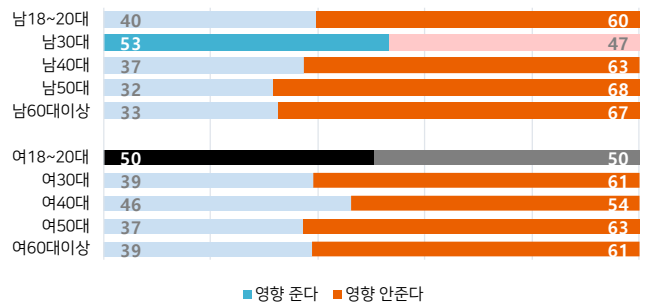
□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결과, 내게 '영향 안준다' 60%

- 국민들은 각종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가 자신의 후보 선호에 '영향을 안준다'고 생각하고 있음
 - “다음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 선호도 등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선생님의 후보 선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영향 안준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특히 높은 계층은 △진보층 △남자 5060대 △경기.인천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등임
- 상대적으로 '영향 준다'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18~20대 △PK △블루칼라 계층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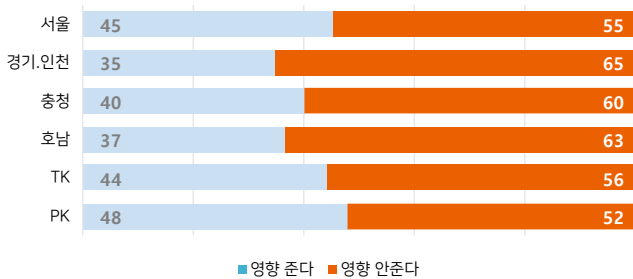
여론조사 결과, 대선후보 선호 영향 정도: 국민전체,이념별,이익층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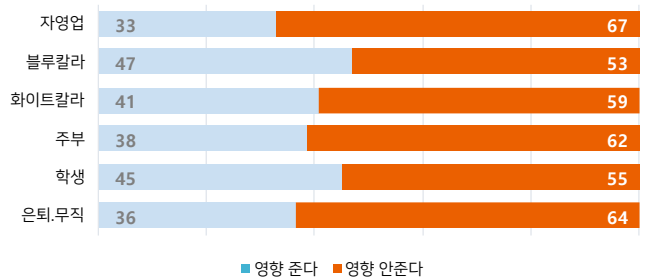
여론조사결과,대선후보 선호 영향 정도:성/연령별 (단위:%)



여론조사 결과, 대선후보 선호 영향 정도: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여론조사 결과, 대선후보 선호 영향 정도: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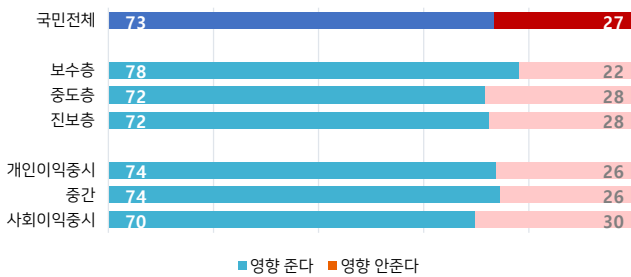
Kstat Point

- ☑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가 자신의 후보 선호에 영향을 안준다고 생각하는 배경에는 앞서의 낮은 여론조사 신뢰도가 작동하기 때문으로 보임
 - : 즉,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후보 선호에 영향을 안미친다는 것으로 이해됨
- ☑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도와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칫 민의를 왜곡하고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역기능도 존재함
 - : 신뢰도 높은 선거 여론조사는 순기능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 역기능을 하면서 이른바 '여론조작'으로까지 치달을 우려가 있음
- ☑ 지금의 여론조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역기능이 부각된 상황으로, 관련 종사자(학계, 업계, 언론 등)들의 책임의식과 신뢰도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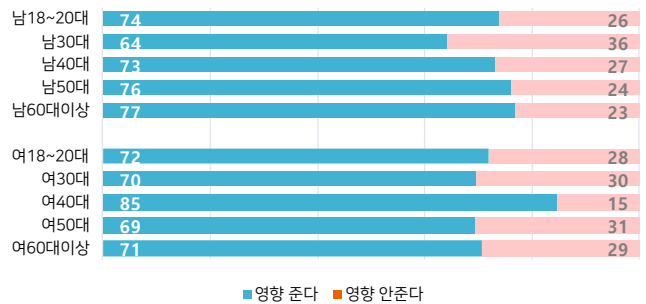
□ 선호도 조사결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준다' 73%

- 국민 대다수는 대선후보 선호도 등 여론조사 결과가 '내게는 영향을 안준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에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함
 - 앞서의 질문에 이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임
-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73%로 높고, '영향을 안준다'는 응답은 27%에 그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영향 준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특히 높은 계층은 △보수층 △남자 5060세대 △여자 40대 △경기.인천 △블루칼라, 학생 등임
- 상대적으로 '영향 안준다'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사회이의 중시층 △남자 30대 △여자 30대, 여자 50대 △TK △주부, 은퇴.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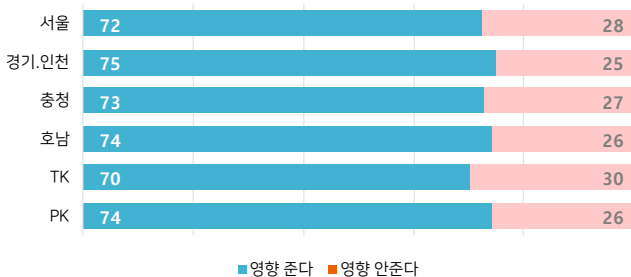
여론조사 결과, 다른 사람들 영향정도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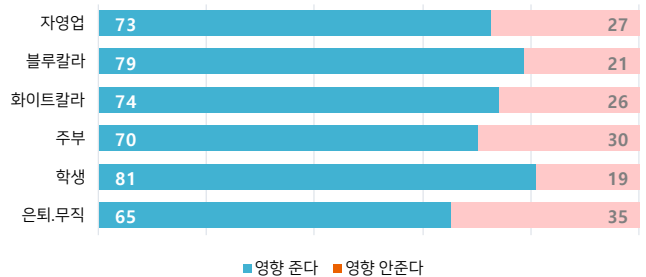
여론조사 결과, 다른 사람들 영향정도 : 성/연령별 (단위:%)



여론조사 결과, 다른 사람들 영향정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여론조사 결과, 다른 사람들 영향정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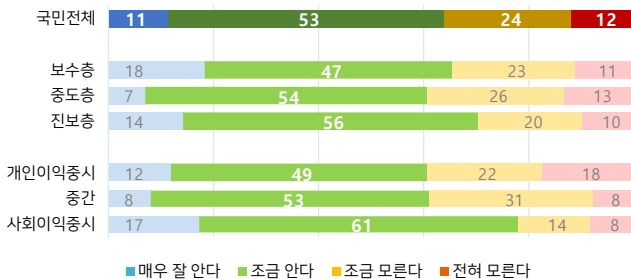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다수는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가 자신에게는 영향을 안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에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함
- ☑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배경에는 자기 스스로 영향을 받았던 경험이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임
 - : 즉,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임
- ☑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금보다 더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조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전망됨
 - : 또한 여론조사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한 후보는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고, 사회적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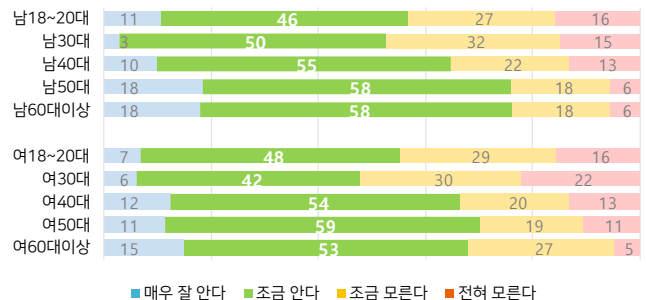
□ 여론조사 방법 차이 인지 여부, '조금 안다' 53%

- 여론조사는 조사대상 선정에서부터 조사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
- 국민들에게 이러한 여론조사 방법의 차이를 아는지 질문한 결과 국민 중 53%는 '조금 안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조금 모른다' 24%, '전혀 모른다' 12%, '매우 잘 안다' 11% 순으로 조사됨
 - "여론조사 방법은 크게 전화 면접 조사와 ARS(자동응답) 조사로 구분됩니다. 선생님은 여론조사 결과를 접할 때 이러한 조사 방법의 차이를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 걸쳐 '조금 안다'는 응답이 우세함
- 한편,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보수층 △사회이익 중시층 △남자 5060세대 △여자 60대이상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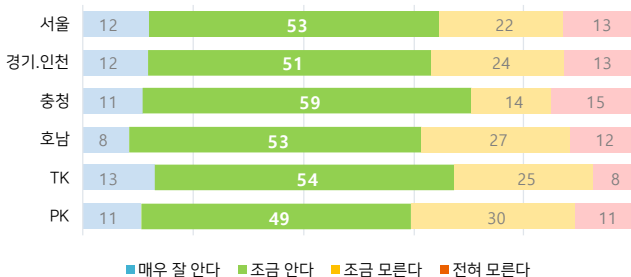
여론조사 방법 차이 인지 여부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1.08.08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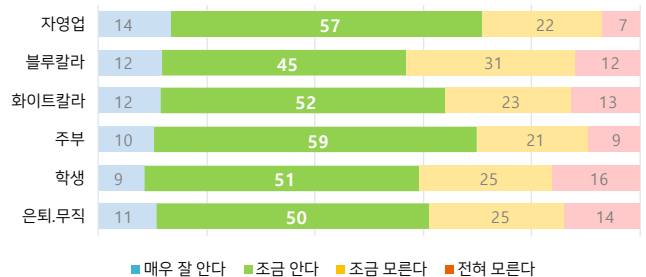
여론조사 방법 차이 인지 여부 : 성/연령별 (2021.08.08조사, 단위:%)



여론조사 방법 차이 인지 여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1.08.08조사, 단위:%)



여론조사 방법 차이 인지 여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1.08.08조사, 단위:%)



Kstat Point

- ☑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선거 여론조사 방법은 크게 전화 면접 조사와 ARS(자동응답) 조사로 구분됨
 - : 문제는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 간의 결과 차이가 크다는 데 있고, 이는 여론조사 신뢰도 하락의 주된 요인임
 - : 국민 다수는 조사 방법의 차이를 잘 모르기에 조사결과의 차이(선호도 수치 차이)에만 주목하면서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임
- ☑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 중에서 조사 방법의 차이를 잘 아는 비중은 11%에 불과함
 - : '조금 안다'는 비중은 53%인데, 조사 방법 차이를 조금 아는 것만으로 수치 차이를 이해하기란 힘들다는 지적임
 - :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방법론을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음
- ☑ 여론조사기관 또는 언론사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스스로 담보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여론조사 실시와 결과 발표, 사후 검증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35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35호는

9월 9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